

2017 새 설계

문 동 신 군산시장

“조선업 위기를 기회로…잘사는 군산 만들어 나갈 것”



“국내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사는 하나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4일 “올해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바람을 극복하고 파도를 헤쳐 나가 기여이 목표를 달성하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각오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격(豊和格)을 갖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원대한 여정을 떠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문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의 장기화는 ‘60고 초려’라는 신조어로 극전을 받을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군산조선소마저 도크 폐쇄가 우려되는 연쇄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고야 마는 독심을 가진 역전의 명수 ‘군산인’의 기개와 의지를 한데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시장은 “실제 군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백제 오성인의 후손으로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과 최대의 항일 농민항쟁을 벌여 불의에 저항했고, 6·25전쟁 때

산업단지 살리기 기업유치 최선

원도심 근대관광대표도시 육성

어린이 행복도시로 유니세프 인증

해병대 최초의 전투지이자 전승지로 복원의 금강진출을 저지한 불굴의 군산 정신이 내재돼 있다”면서 “10년 전 불꺼진 항구를 밝히기 위해 ‘예산은 투쟁이다’는 각오로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를 확보하고, 분양률이 23%에 불과한 산업단지를 살리고자 기업유치에 전력투구해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484개 기업을 유치한 저력을 다시 한번 실현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시장은 특히 “일제강점기 잔재조차 치워지지 않았던 원도심에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 관광볼모지 군산을 2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근대관광 대표도시로 변화시키고, 9조 1000억원이라는 지역 내 총생산을 달성하며 전북도 1위로 도약한 저

력도 있다”면서 “올해는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에 남북 2축·동서 2축의 십자형 도로 건설과 한·중 FTA 산업단지 선정 등을 발판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 시장은 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정치권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가 흘렸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2017년에는 ‘경제활성화·관광광역화·어린이행복’에 역점을 두고 시장을 운영해 위기의 시대를 새로운 군산으로 창출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시장은 이어 “세상을 이끄는 리더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이라며 “1400명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그런 희망과 믿음을 주도록 임사이구(臨事而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신중하고 치밀하게 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시장은 지난해 성과로는 “작년 한 해 1조 40

2017년 주요 역점 사업은

▲폐쇄 위기 군산조선소 정상화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건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구축
▲대한민국 대표 관광 광역화 실현

역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달성했으며 자체예산도 2016년 결산추경 기준 1조 445억 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민선 6기 역점사업인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해가 됐으며,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근대역사박물관, 문화예술 중심 군산예술의전당 활성화, 고군산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200만명 돌파는 새로운 기회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4-H연합회원 모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4일 “자연 사람과 인간사랑의 4-H 정신을 실천할 4-H연합회원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중인 4-H연합회는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 농민으로의 성장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부안 거주 영농인을 회원으로 모집한다.

부안군 4-H 연합회는 지난해에는 우수회원의 안

정적 영농활동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과제활동 수행, 선진영농현장 견학, 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4-H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집중해 왔다.

부안군 4-H연합회는 또 전북 4-H 경진대회에 참여해 입상하는 등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최병문 전임 회장이 중앙 4-H 연합회장에 당선되는 등 한국 청년 농업의 리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정읍시, 연지아트홀 올해 완공

옛 도심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도심 연지동에 신축 중인 아트홀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늘려나가는 등 옛 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비 등 총사업비 82억6000여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연지아트홀을 올해 완공해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로 삼을 계획이다.

옛 정읍군청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게 될 연지아트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2018㎡)의 건물로 203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연지아트홀은 문화예술공연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갈수록 쇠락하는 옛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는 음향과 조명 등 제대로 된 무대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없어 문화예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연지아트홀 건립은 2013년부터 계획했으나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사업추진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연지아트홀이 완공되면 국악과 농악의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아트홀이 옛 도심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훈련도 실전처럼…서해해경 특공대 대테러 훈련



서해해경경비안전본부(고령성 치안감본부장) 특공대는 “새해를 맞아 서해바다 대테러 역랑 강화를 위해 해군 특임대대(UDT)와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기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 해경은 대형 경비함 1척, 방탄보트 1대, 특공대 1개팀을 동원했으며, 해군은 군함 4척과 링스헬기 2대, 해군 특임대(UDT) 1개팀을 투입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 새 얼굴

“농어민 편익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

심 덕 섭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지역 농어민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농어촌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보성지사장에 취임한 심덕섭(56) 지사장은 4일 “직원간 상호 신뢰와 화합, 합리적인 경영혁신과 투명경영으로 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지역 농업인과 소통하고 우리나는 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농어민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신임 지사장은 정읍 출신으로 1989년 공채로 입사한 뒤 영광지사 유지관리부장, 금강사업단 유지관리부장,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부장, 영산강사업단 시설운영부장 등을 역임했다.

/보교=김윤성기자 kim0686@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충족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매 매 22억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인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희리 연사무소 뒷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695㎡ 남향 위치중음 5300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바다 전망중음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음 남향땅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 중음 교통중음 5억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는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3365㎡ 아파트 등 적합 4억5천
- 담양군 금성면 국도접 7255㎡ 다용도 7억3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원
- 대인동 상업지 580㎡ 오피스텔 사옥 생활주택 적합 13억
-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6600만원
- 광산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장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남향·도로중음 7억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건물 신축 적합 5억2천
- 강진군 월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할·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도로여건 중음 3억6500
- 북구 망월동 마을내 대지 430㎡ 시골생활도 가능 1억3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건너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옥, 광고제작 등 적합 3층건물임 매도 2억6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등비림
- 운림동 중상사립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모텔 충흥동 대지 184㎡ 건물 66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택

- 임대 월산동 통고개역에서 4분거리 1층 빌라 3실 천에 52만원
- 월산동 큰소방도로접 대지 175㎡(53평) 건평 80㎡ 1억5천
- 함평군 해보면 문정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제일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32평, 코너, 전망최고
- 20층중 9층, 전체 리모델링
- 사무실 전용
- 시세 - 1억 4000만원
- 급매 - 8000만원 (일시불)
- 2017년 1월 10일까지
- 보 500만원에 월55만원 임대가능
- 문의 H.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